민주당 강세 속 민평-바른미래 등 '도전장'

광주시장, 민주 컷오프·결선투표 '경선 룰' 촉각

후보연대·당원명부 유출 수사·정당간 후보 변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이어 광주지역 5개 구청장과 시의원, 전남 시단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13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과 비민주당 선수 선발로 나눌 수 있다.

'민주당 경선=당선'이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민주당 당내 경선은 가장 큰 관심사다. 경선은 7파전 양상. 현직 윤장현 시장과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 3선의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이다.

비민주당 진영에선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창당과 조직정비 등으로 여수선해 출전선수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보다는 외부영입에 힘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각종 여론조사 정당 선호도에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향배는 경선 등을 통해 단일후보가 정해진 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 선거는 무엇보다 컷오프와 결선투표 등 경선 룰이 최대 관심사다. 중앙에서는 과열 조짐을 우려하며 전략공천과 조기경선 카드를 만지작거린 데 이어 결선투표를 기정사실화했다. '공천관리위 심사로 2명 이상의 후보를 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는 종전 규정이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관리위는 1·2차 경선을 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부적격 후보자를 사전에 컷오프한 후 당내 경선에서 1차 과반득표자가 없을 시 2차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 컷오프없이 7명 모두 출전토록 한 뒤 과반이 없을 경우 1, 2위 또는 1~3위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결선투표 시 낙선후보 지지표가 어디로 모아질 지, 후보간 합종연횡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측근들이 연루된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피해 당원들의 고발과 집단소송, 부적격자 감점과 신인 가산점,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참신성과 인지도를 무기로 내세울 '대항마'가 누가 될지도 주요 변수이자 관전포인트다.

5개 구청장 선거도 변수와 지뢰밭이 가득하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이 '구태 회귀'라는 반발 속에서도 득이 될 지, '폭탄돌리기'로 끝날 지 관심사고, 민평당과 바른미래, 그 밖의 군소정당은 '당선퍼즐'을 맞출 파괴력있는 후보추대가 관건이다.

지역별로는 노인층이 많은 옛 행정타운 동구는 '관선자치'의 오랜 전통이 이어져 관료가 당선될 지, 비관료 정치인이 관행을 깰 지 초미의 관심이고, 신 행정 중심지인 서구는 관료출신 강세가 되풀이될 지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무·금호·풍암지구의 표심이 어디로 갈 지가 단연 관심사다.

비관료 출신이 득세해온 남구는 민주당과 민평당 조직간 세 대결과 최영호 청장의 의중, 권리당원 중심의 당심이 최대 변수고, 관료출신이 강세를 보여온 북구에서는 행정부시장 출신의 중량급 관료와 실력파 시의원 3인방이 민주당 경선에 맞붙고, 민평당에선 시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내 일찌감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광산구에선 민주당 전략공천 여부와 민형배 청장 조직표의 향배, 지역구 국회의원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주요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철 기자

광주·전남 지방의원 사직 '봇물'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경선 준비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뛰어든 이 지역 시·도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보현 의원(서구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낸 시의원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김 전 의원은 사직서 제출 후 이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김 전 의원은 "3월 회기를 마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하루라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사직서 제출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3월 임시회 회기(5~12일)를 마친 후 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시의원들의 사직서 제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청장에는 임택 의원(동구1)이, 서구청장에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김영남(서구3)·심철의 의원(서구1)이, 남구청장에는 김용집(비례)·박춘수(남구3)·유정심 의원(남구2)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북구청장에는 김동찬(북구5)·이은방(북구6)·문상필(북구3)·조오섭 의원(북구2)이, 광산구청장에는 김민종(광산4)·이정현 의원(광산1)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으로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월 임시회(9~16일)의 경우 의사 정족수인 재적의원 22명의 3분의 1을 가까스로 채울 것으로 보이며 5개 상임위도 반쪽 짜리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3월 임시회가 예정된 전남도의회도 출마예정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의원은 없지만, 도의회에서는 의원 57명 가운데 20명 이상이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된다.

박철홍(담양)·정영덕(무안)·윤시석(장성)·이동권(영광) 의원 등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명규(보성) 의장·권욱(목포)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상당수도 지역구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담양·신안 등 일부 시·군에서는 복수 도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정근산·조기철 기자

박요주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지난 3일 오후 2시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신문식 더불어민주당 보성·고흥·강진·장흥 위원장과 조영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어의 귀향, 박요주가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연어의 귀향, 박요주가 희망을 말하다"

박요주, 보성문화예술회관서 '출판기념회'

박요주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가 지난 3일 오후 2시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연어의 귀향, 박요주가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박진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출판기념회는 신문식 더불어민주당 보성·고흥·강진·장흥 위원장을 비롯, 하승완 전 보성군수, 임영수 전남도의원, 강복수 보성군의장, 신경균·조영남 보성군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외부인사로는 조영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안종일 광주·전남 백범기념사업회장, 김용국 전남 문인협회장, 박재순 재광향우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줄을 이었다.

박 총재는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이 책에서 말하듯 고향을 떠난 새끼 연어는 오대양을 누비면서 영양분을 축적해 산란할 때가 되면 고향에 돌아와 알을 낳고 생을 마친다"며 "앞으로 보성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여는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특히 "저도 연어처럼 외지에서 40년간의 공직생활과 10년간의 봉사활동으로 쌓은 모든 것을 고향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일고,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총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초아의 봉사단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 연합회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보성=선상희 기자

신정훈 청와대 비서관 전남지사 출마?

민주 경선구도 요동…이개호 만류 속 '관심'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광주·전남 유일 현역의원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출마를 만류하고 있는 가운데 신 비서관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신 비서관이 정치권 일각의 권유로 전남지사 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해 5·9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전남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신 비서관이 전남지사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당내 경선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신 비서관이 경선에 뛰어들 경우 오랜 기간 쌓아 온 지역 인맥과 친분이 두터운 전·현직 단체장 등을 고려할 때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신 비서관측 관계자는 "주변에서 계속 출마를 권유하고 있어 고민 중이다. 조만간 결론지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이개호 의원의 출마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첨단 THE HUB 오피스텔 분양공고

THE HUB 첨단 THE HUB 견본주택

분양문의 T. 961-1717